

주말에
뭐하세요?

맑은 나를 찾아 떠나는 향기로운 여행 ...

길상사 Templestay

휴식을 위한 당신의 주말
끝없는 업무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지친 몸과 마음을
TV 채널에 맡겨버리셨나요?
여기
고요한 사찰에서 그리고 자연에서
바쁜 일상의 나를 잠시 쉬게 하고
향기로운 차와 지혜로운 대화로
근심과 걱정을 가볍게 만드는 템플스테이
행복 가득한 시간
특별한 여행으로 초대합니다.

템플스테이(Temple stay)는 한국의 사찰에 머물면서 사찰의 일상 생활을
체험하고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와 수행 정신을 체험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상사는 매월 셋째, 넷째 주말 선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3672-0036, 3672-5945



마음 · 세상 · 자연

맑고 향기롭게

2012. 4



맑음은 개인의 청정음,
향기로운은 그 청정의 사회적 메아리를 뜻합니다.
- 法頂 -



2012년 4월 1일(매월1회) 발행 · 통권 206호 · 1999년 6월 23일 등록 · 등록번호 서울라08708호
발행처 맑고 향기롭게 모임 136-022 서울 성북구 성북동 323 길상사 내 ☎ 02,741~4696~7



향기로운 삶

밤과 새벽으로 속독새가 오두막 위로 날면서

‘속독속독’ 울어 댈다.

찌르레기도 온 골짜 안을 울리고,

어제 아침에는 검은등버꾸기도 찾아왔다.

철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드는 철새들,

그 신의가 미덥고 기특하고 고맙다.

사람은 번번이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 있어도

철새들은 결코 어기지 않는다.

- 범정스님의 ‘홀로 사는 즐거움’ 77쪽 -



그냥 철 따라 오고 가는 새들이러니 하면서 무심하게 살아 왔었는데, 그들에게는 사람 보다 나은 신의가 있었음을 오늘 깨우치며 우선 누구보다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음이 곧 모든 사람들과 깨어지지 않는 믿음이 되리라 생각되는 날이다.

표지 그림 및 설명 • 이연 이유경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욕심을 줄이고 만족하며 삽시다 • 화내지 말고 웃으며 삽시다 • 나 혼자만 생각 말고 더불어 삽시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나누어 주며 삽시다 • 양보하며 삽시다 • 남을 칭찬하며 삽시다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우리 것을 아끼고 사랑합시다 • 꽃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가꾸며 삽시다 • 덜 쓰고 덜 버립니다.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주머니” 접수

그간 길상사에서는 부처님 오신날의 기쁨을 성북구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갖가지 생필품이 담긴 자비의 주머니를 전함으로써 함께 해왔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자비의 주머니”에 동참하실 분들의 후원을 접수받습니

다. 생필품(비누, 양말, 식용유, 김 등)을 보내 주시거나, 성금을 성의껏 주시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주머니’를 전달하겠습니다. 동참하실 분은 5월 20일까지 종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분들의 따뜻한 동참을 기다리겠습니다.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 기도

법회/기도명	일정	시간	장소
다라니기도	5월 5일	오후7시~9시	극락전
삼천배 철야정진	5월 14일	오후8시30분~새벽4시	설법전
시민선방 철야정진	5월 14일	오후9시~새벽4시	길상선원
지장재일 기도	5월 8일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기도	5월 14일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 기도	5월 21일	9시 50분	극락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	5월 28일	9시	극락전
길상음악회	5월 28일	오후 7시	극락전 뜨락
극락전 기도	매일	새벽4시, 9시50분, 저녁7시	극락전
지장전 기도	매일	새벽4시, 9시50분, 저녁7시	지장전
일요법회	매주 일요일	9시 50분	설법전
청년회 법회	매주 일요일	오후 3시	소강당
어린이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소강당
중고등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도서관
거사림 정기법회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설법전
보현회 정기법회	매월 음력 초하루	오후 1시 30분	지장전
합창단 정기법회	매월 넷째 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지장회 정기법회	매월 둘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문수회 정기법회	매월 셋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보리회 정기법회	매월 첫째 월요일	오후 1시	소강당
새신도 교육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20분	소강당